한국어 교육 제17권 3호 (2006)
pp. 73-109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 "<한글>능력검정시험" 초급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스가이 요시노리(須賀井 義教)
(동경외국어대학 박사후기과정,
메이지가쿠인대학 · 호세이대학 강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 "<한글>능력검정시험" 초급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스가이 요시노리(須賀井 義教)
(동경외국어대학 박사후기과정,
메이지가쿠인대학 · 호세이대학 강사)

Yoshinori Sugai. 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Beginner's Level of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and the Hangul Language Proficiency Test.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7-3: 73 - 109.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OPIK and the Hangul Language Proficiency Test, which is administered in Japan. In this paper, we confined our attention to the beginner's level of these two tests and analyzed their test items in terms of pronunciation, vocabulary, grammar, and discourse. As a result, although they have the same name "beginner's level", these proficiency tests revealed many differences in their distribution of grammatical items. Furthermore, the TOPIK doesn't have test items concerning pronunciation. Such differences reflect how the two test systems interpret the "beginner's level", and how they decide what learners need to study at the beginner's level. From a contrastive linguistic point of view, these proficiency tes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cause the Hangul Language Proficiency Test introduced such contrastive viewpoints into their test items, while the TOPIK didn't. We should recognize these differences appropriately for effective use of these two tests.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제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글>능력검정시험(the Hangul Language Proficiency Test), 초급(beginner's level), 문항 분석(analysis of test items),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

1. 서론

1.1 본고의 목적

본고[1]는 "한국어능력시험"(KPT/TOPIK, 이하 'TOPIK')[2]과 일본 "<한글> 능력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3]을 대상으로 이들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어 능력 평가의 모습,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TOPIK과 검정시험은 모두 한국어의 숙달도를 측정하는 평가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이희경, 2005:491), 또 일본에서 응시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평가로서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험들이기도 하다. 또한 평가 수준을 초급 · 중급 · 고급의 세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다시 세분화하여 6등급, 7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체제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

---

1) 본고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6차 국제학술대회(2006년 8월 5일-6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요지 작성 단계로부터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선생님(동경외국어대학), 金珍娥 선생님(메이지가쿠인대학)께 많은 지도를 받았고, 高槿旭 씨(동경외국어대학 석사과정)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귀중한 지적도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리하여 각국 주재대사관 등이 시행하는 시험으로서 1 · 2급(초급), 3 · 4급(중급), 5 · 6급(고급)의 여섯 단계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http://topik.or.kr/). 2006년도에 시행될 제10회 시험부터 응시자는 각 급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 · 중 · 고급으로 지원하여 점수에 따라 1 · 2급, 3 · 4급, 5 · 6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등급 부여 방식이 바뀌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김정숙 · 최은규 · 김유정 2005a).

3) <한글>능력검정시험은 일본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한글 능력 검정협회)가 주관, 시행하는 시험으로서 2005년 가을에 실시된 25회 시험까지는 5 · 4 · 3급(초급), 준2 · 2급(중급), 준1 · 1급(고급)의 일곱 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었다. 2006년 6월에 실시된 26회 시험부터는 준1급을 없애고 5 · 4급(초급), 3 · 준2급(중급), 2 · 1급(고급)의 여섯 단계로 수준이 개정되었다. 자세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http://www.hangul.or.jp/).

두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TOPIK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비해 검정시험은 일본에서만 시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시 대상자가 다르고 그 평가 내용과 출제되는 문항 또한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국어 평가가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만족스러운 논의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특히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4]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능력 평가의 수준에 맞추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5] 국제문화포럼(2005:68-69)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본 내 대학에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학점 인정 상황(A대학의 경우)[6]

학점수	0	2	4	6	8	10
TOPIK	1급	2, 3급	4급	5급	6급	--
검정시험	5급	4, 3급	준2급	2급	준1급	1급

위 <표 1>에 제시된 학점수로 볼 때 TOPIK과 검정시험의 등급이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TOPIK 1급과 검정시험 5급은 합격해도 학점이 인정되지 않고, TOPIK 2급이나 3급, 검정시험 4급이나 3급에 붙으면 2학점이 인정된다. 이 학교에서는 TOPIK과 검정시험의 각 등급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두 시험이 그 평가 내용이 다른데 같은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내용에 맞도록 학점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TOPIK과 검정시험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4) 국제문화포럼(2005:33, 49)에 의하면 2003년도에 일본 국내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4년제 대학은 335개 대학으로 1995년도의 143개 대학과 비교할 때 약 2.3배이다. 2003년도 수강자 수는 약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5) 국제문화포럼(2005:68-69)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답한 전체 학교 158개 대학 중 TOPIK 합격 수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는 대학은 15개 대학으로 9.5%, 검정시험의 경우는 18개 대학으로 11.4%였다.

6) 여기서 "A대학"이란 국제문화포럼(2005)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1.2 선행연구

한국, 일본에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7] 그 중에서도 TOPIK 초급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어휘와 문법의 분포를 정리한 것으로 강은아(2002), 고우리(2004)를 들 수 있다. 각각 TOPIK 제1회~제4회, 제3회~제6회 문제에 나타난 어휘, 문법 항목의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고우리(2004)는 더 나아가 한국 국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의 대응 양상도 검토하였다. 두 연구 모두 각 문제에 나타난 어휘 빈도를 표로 정리한 바가 있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한편 이희경(2005)는 제7회 TOPIK과 제23회 검정시험의 초급 수준을 대상으로 그 문항에 나타난 어휘 등을 비교하였다. 이희경(2005)는 각 시험의 출제 기준이나 특징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시험에 나타난 어휘나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 1회분만의 시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항목들의 출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강은아(2002), 고우리(2004)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각 항목의 출제 빈도는 매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3회 시험을 자료로 하여 실제 문항을 분석한다. 대상을 '초급'으로 설정된 등급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출제되었는지 분석함과 동시에 그러한 분석을 통해 두 능력 평가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 차이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각 시험에 반영된 한국어교육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까지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TOPIK 표현 영역('어휘・문법', '쓰기')과 검정시험 '筆記' 문제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TOPIK 이해 영역('읽기', '듣기')과 검정시험 '聞

7) 최은규(2005:370-375)에서 한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된 논고를 연도별로 정리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적에 대해서는 최은규(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TOPIK에 관한 개요, 운영 현황, 과제 등에 대해서는 김광해(2002), 김유정(2005), 민병곤(2005) 등을 참조. 또 검정시험에 대해서는 유타니[Yutani](2002)에서 한국어로 소개된 바가 있고, 현황에 대해서는 김혜진(2005)도 참조할 수 있다.

きとり'(듣기) 문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

시험	TOPIK	검정시험	
횟수	7회(2003년도), 8회(2004년도), 9회(2005년도)	24회(2005년 봄), 25회(2005년 가을)	26회(2006년 봄)
등급	초급(1급, 2급)	초급(5급, 4급, 3급)	초급(5급, 4급)
대상 영역	표현(어휘 · 문법, 쓰기)	필기	필기
문항 총수	360 (어휘 · 문법, 쓰기 각 30개씩)	329 (24회/25회: 5급 43, 4급 45, 3급 39. 26회: 5급 41, 4급 34)	

2. 각 시험의 출제 기준과 구성 비교

2.1 TOPIK과 검정시험의 출제 기준

검정시험은 2002년도에 "學習の手引き(학습 길잡이, 이하 '길잡이')"가 출판되면서 그 출제 기준, 각 급에서 출제되는 어휘 등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후 그 내용에 따라서 각 급 문제가 작성되었다. 한편 TOPIK에 관해서는 '길잡이'와 같이 출제 내용을 망라한 책이 출판되어 있지 않다.

검정시험은 2006년 6월 4일에 시행된 제26회 시험부터 시험 내용과 출제 기준이 개정되었다.[8] 2006년 3월에 출판된 "합격 도우미(이하 '도우미')"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길잡이'와 비교하여 검정시험 초급의 출제 기준을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이하 검정시험 중 25회 이전 시험을 '검정시험1', 26회 시험을 '검정시험2'로 부르기로 한다. 이 두 시험을 구별하지 않고 검정시험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검정시험'으로 제시한다.

<표 3-1> 검정시험1과 2에서의 초급 출제 기준 (5급)

	검정시험1: 2005년 25회 이전	검정시험2: 2006년 26회
5급	-**20시간 정도** 학습한 수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 단계. 짧은 문장을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다. -1부터 10까지 셀 수 있다.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다. -**약 300개 단어**와 16개 인사말을 '길잡이'에서 제시.	-초급 전반 단계. **60분 수업을 40시간** 수강한 수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 단계. 한글 모음과 자음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약 450개 단어**와 한정된 文型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읽거나 들을 수 있다. -인사말이나 간단한 질문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이름, 특징,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 私的인 화제, 日課나 예정, 음식 등 주변의 사실에 대해 전달할 수 있다.

<표 3-2> 검정시험1과 2에서의 초급 출제 기준 (4급)

	검정시험1: 2005년 25회 이전	검정시험2: 2006년 26회
4급	-**50~60시간 정도** 학습한 수준. -기초적인 한국어를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다. -초보적인 단어로 간단한 인사나 소개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초적인 단어로 짧은 문장을 쓸 수 있다. -**약 600개 단어**와 34개 인사말을 '길잡이'에서 제시.	-초급 후반 단계. **60분 수업을 80시간** 수강한 수준. -비교적으로 빈도가 높은 **약 950개 단어**와 文型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읽거나 들을 수 있다.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면에서 인사를 할 수 있고 사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주문하거나 물건을 살 때 "定型的인" 의뢰를 할 수 있다. -사전을 찾을 수 있다. 자주 쓰이는 단어들의 조합(連語)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짧은 문장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메모나 영수증과 같은 實用的인 문장, 영화 티켓 등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3-3> 검정시험1의 초급 출제 기준 (3급)[9]

3급	-**120시간 정도** 학습한 수준. -평이한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호텔에서 예약하기,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기, 전철역 등의 창구에서 용건을 이야기하기 등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설명, 광고문 등을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문장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 -**약 1500개 단어**와 한자 약 300자를 '길잡이'에서 제시.

9) 검정시험2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이 중급으로 배치되므로 생략하였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정시험1에서는 5급에서 3급까지가 초급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검정시험2부터 5급은 초급 전반, 4급은 초급 후반('도우미' 9쪽)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각 급 레벨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휘 수는 5급과 4급 모두 약 1.5배로 늘어났다. 사실 어휘 수의 증가뿐 아니라 각 단어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검정시험1의 4급에서 출제되었던 단어들이 검정시험2에서는 5급에서 출제되고 있다.

다음으로 TOPIK에 대해 정리하겠다. 여기서 평가 기준은 TOPIK 홈페이지, 평가 내용은 김왕규 외(2001)에 따른 것이다.

<표 4-1> TOPIK 평가 기준

	출제 기준
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표 4-2> TOPIK 어휘·문법 영역의 평가 내용

	어휘·문법 영역 평가 내용
1급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된 기본적인 문장 구조 -서술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등 문장의 종류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으로 구성되는 의문문 -'그리고', '그러나' 등과 같은 자주 쓰이는 접속사 -'이/가', '은/는', '을/를', '에' 등 기본적인 조사 -'-고', '-어서', '-지만' 등 기본적인 연결어미 -기본적인 시제 표현 -'안'과 '-지 않다'로 이루어지는 부정문 -'ㅡ', 'ㅂ', 'ㄹ' 불규칙 동사
2급	-'보다', '이나', '밖에' 등 비교적 자주 쓰이는 조사 -'-을까요?', '-을 거예요' 등 자주 쓰이는 종결형 -'-고 있다', '-어 있다', '-어 주다', '-어 보다' 등 기본적인 보조용언 -'-으면', '-는데', '-으면서' 등 자주 쓰이는 연결어미 -'르', 'ㅅ', 'ㅎ', 'ㄷ' 불규칙 동사 -관형형 -용언의 부사형 -높임법의 기본적인 형태

여기까지 각 능력 평가에 대해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출제되는 어휘 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

출제되는 어휘 수로 보면 대체로 검정시험1・2의 4급과 TOPIK 1급, 그리고 검정시험1・2의 3급과 TOPIK 2급이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검정시험 5급 수준의 단어는 TOPIK 1급 어휘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검정시험1・2는 그 단어가 모두 리스트로 공개되어 있으나 TOPIK은 그렇지 않다.[10]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초급 단계에서 요구되는 어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데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출제되는 어휘, 문법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나 리스트가 필요할 것이다. 지원하기 전에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TOPIK은 그 등급 구분과 내용 작성에 있어 한국 국내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참조하고 있다. 강은아(2002:3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대체로 일주일에 20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주 20시간, 한 학기 10주로 구성되면 총 학습 시간은 200시간이다. <표 3-1, 3-2, 3-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정시험 5급에서는 20시간 혹은 40시간 정도 배운 수준을 대상자로 규정하였다. 검정시험1의 3급에서도 120시간밖에 안 된다. 각 등급에서 기준으로 하는 학습 시간 수에도 두 능력 평가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 TOPIK과 검정시험의 전체적 구성

개별적인 문항을 분석함에 앞서 TOPIK과 검정시험1・2의 전체 구성에서 보이는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각 시험의 구성에서 몇 가지 특징을

10) 고우리(2004:16-18)에서 TOPIK 제3회부터 제6회까지의 문제에 나타난 어휘 빈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1급에서 제시된 어휘 품사빈도는 총 418개, 2급에서는 총 544개였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TOPIK과 검정시험의 구성 상 특징

	주관식문항	객관식문항	대화문으로 이루어진 문항	일본어 표시
TOPIK	있음	있음	**비교적으로 많음**	없음
검정시험	**없음**	있음	한정되어 있음	**있음**

먼저 문항 구성을 보면 검정시험1·2 '筆記' 문제는 모두 객관식 문항만 출제되며 TOPIK은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이 출제된다.[11]

대화문 형식의 문항은 TOPIK 문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TOPIK에서는 1급부터 문제에 대화문이 나타난다. 검정시험1·2에서도 대화문은 확인되지만 그것은 대화 완성이란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서의 일본어 표시는 검정시험이 일본에서 시행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검정시험에서는 문제 지시문이 일본어로 제시되고,[12] 또 문제에 보조적으로 일본어가 들어가기도 한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는 TOPIK은 그렇지 않다. 또한 검정시험1과 2 사이에는 일본어가 제시되는 분량에 차이가 있다. 검정시험1은 문장의 빈칸을 메우는 문항에서도 일본어 번역이 함께 제시된다. 또한 한국어/일본어 번역에 관한 문항도 출제된다. 그러나 검정시험2에서는 단어의 의미 파악을 제외하면 일본어가 거의 안 나타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4.2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또 일본어 표시와 관련하여 검정시험1은 5급에서 "도쿄, 오사카"와 같은 일본어의 한글 표기가 출제된다. 이것은 TOPIK과 검정시험2에는 안 보이는, 검정시험1만의 특징이다. 한글을 제대로 읽고 적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일본어의 한글 표기는 적당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또 자기 자신

11) TOPIK 1급·2급에서는 전체 문항의 10%까지 주관식 문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김정숙·최은규·김유정, 2005b:92). TOPIK은 2006년도 제10회 시험부터 어휘·문법, 듣기, 읽기 영역은 모두 객관식 문항만으로 구성되며 쓰기 영역에서는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이 함께 출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김정숙·최은규·김유정(2005b)를 참조.

12) 단 준2급 이상은 한국어로 제시된다.

의 이름이나 주변의 지명 등 익숙한 일본어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정시험I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요시하여 일본어의 한글 표기가 출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문항 분석

이하에서는 실제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능력 평가를 비교하는 데 있어 통일된 틀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비교하기 위하여 어휘와 문법 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이고 또한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발음과 담화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13]

3.1 발음에 관한 문항

유타니[Yutani](2002:302), 이희경(2005:492)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검정시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발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검정시험2: 26회/4급
발음대로 표기한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못해요: ① 모새요 ② 모대요 ③ 모태요 ④ 모해요

13) 이하 실제 문항을 제시할 때에는 "시행횟수/급(/출제 영역)"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24-26회는 검정시험, 7-9회는 TOPIK을 가리킨다. TOPIK에 대해서는 출제 영역도 아울러 표시한다. 예를 들어 "검정시험I: 25회/4급"은 검정시험 25회 4급 문제를 가리키며 "TOPIK: 8회/1급/어휘・문법"은 TOPIK 8회 1급 문제 중 어휘・문법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을 가리킨다. 검정시험에서 문제 지시문 등의 일본어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실제 문항에 없거나 편의상 한국어로 번역하여 덧붙인 부분은 모두 [ ] 안에 넣어서 표시하기로 한다.

'길잡이'와 '도우미'에 따르면 발음에 관한 출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검정시험1('길잡이' 22, 25쪽 참조)
4급: 비음화, 격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폐쇄음 연속으로 인한 경음화
3급: ㄹ의 비음화(독립[동닙]), 경음화(앉을 자리[안즐 짜리], 길가[길까] 등)
(3) 검정시험2('도우미' 45~46쪽 참조)
4급: 비음화(1)(작년[장년]), 연음화, 격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신다[신따], 먹을 것[머글껃], 결정[결쩡] 등)

한편 TOPIK에는 발음에 관한 문항이 전혀 없다.[14] 이 점이 검정시험과 TOPIK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발음 문항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언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며 또 발음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 관점이 전혀 다르다.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검토해 보면 그러한 사정을 다른 각도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15]에서 발음 변화에 대한 설명은 그리 많지 않다. 경희대에서 출판된 《한국어 초급 I · II》에는 연음화, ㅎ탈락, 격음화, 경음화 등 비교적 많은 발음 변화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리고 서울대 《한국어 1》에서는 비음화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이외의 교재에는 발음 변화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한편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들을 보면 이러한 발음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마[野間秀樹](2000), 노마[野間秀樹] · 무라타[村田寛] · 金珍娥(2004)는 본문에서 비음화, 격음화 등을 비롯한 발음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발음 변화에 대한 항목을 10가지

14)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TOPIK도 <듣기>영역에서 발음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비음화, 격음화와 같은 발음 변화에 초점을 맞춘 문항은 TOPIK에서 출제되어 있지 않다.

15) 여기서 참조한 한국어 교과서는 《한국어 1》(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0), 《한국어 1》(한국어문화연수부 편, 2003), 《한국어 초급 I · II》(김중섭 · 조현용 · 방성원 · 홍윤기 · 호정은, 2000, 2001), 《말이 트이는 한국어 I》(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998), 《한국어 1》(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1992)이다.

이상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고시[生越直樹]・曺喜澈(2000), 하세가와[長谷川由起子](2004), 유타니[油谷幸利]・高榮珍(2005) 등에서도 문자와 발음의 도입과 함께 발음변화도 설명하고 있다.

이 점만 보아도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들은 발음 변화 규칙을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 교재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재에도 나타난 이러한 교육 내용의 차이가 능력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를 볼 때, 발음 변화의 지도가 한국 국내에서 그리 중요시되고 있지 않는 것 같는 의심이 든다. 물론 발음 교육에 있어 한국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발음 교육에 있어서 물론 실제로 그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발음에 대한 규칙을 지식으로서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각 단어의 개별적인 발음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새로 접하게 되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발음 변화의 지도에 대해 무관심하면 학습자들이 하는 잘못된 발음을 그대로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의사소통, 그리고 기능 수행을 우선적인 과제로 하면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을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에 교사가 만족해 버릴 수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지향하는 '초급'에 대한 개념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어휘와 인사말에 관한 문항

여기서는 어휘에 관한 문항 중 한자에 대한 문항과 인사말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겠다. 인사말은 거기에 나타나는 어휘나 문법을 떠나서 표현을 통째로 외워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에 관한 문항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3.2.1 한자에 관한 문항

한자에 대한 문항 역시 일본어 모어화자를 응시 대상자로 하는 검정시험

의 독자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검정시험1에서는 3급 이상의 등급에서 한자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출제된다. '길잡이'에서는 약 300개 한자를 제시하였다.

(4) 검정시험1: 24회/3급
문제 3. 밑줄 친 한자의 한글 표기로서 알맞은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飮食: ① 인식 ② 음색 ③ 임식 ④ 음식
2) 方法: ① 방법 ② 반법 ③ 방벅 ④ 반복

이러한 문항은 학습자가 한자·한자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어휘 학습의 계기가 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어휘는 모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한자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자음을 바탕으로 한자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특히 한자음은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어느 정도 대응 관계가 보인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일본어 모어화자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그것을 추측할 수 있으면 학습자들은 효율적으로 한국어 어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노마[野間秀樹]·金珍娥(2005:20-21)에서는 이러한 점을 입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한자·한자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16]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 한자음과 한자어에 대한 교육이 일본에서 얼마나 중요시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검정시험에 보이는 한자에 관한 문항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3.2.2 인사말에 관한 문항

여기서 인사말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검정시험 5급 문제에는

16) 또한 이토[伊藤英人](2005)와 같이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사 연수회"(주일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주최.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음)에서 한자음 교육 자체를 가르치는 교재도 있다.

일본어 인사말에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을 대답하는 문항이 출제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검정시험1: 25회/5급
다음 인사말에 해당되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축하합니다]
① 축하합니다. ② 감사합니다. ③ 반갑습니다. ④ 실례합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그 표현에 포함되는 문법 항목이나 어휘를 불문하고 검정시험1은 5급에서 16개, 4급에서 18개를 추가하여 34개, 검정시험2는 5급에서 31개, 4급에서는 14개를 추가하여 45개가 출제 기준에 포함된다. TOPIK 1급·2급 문제에는 직접적으로 인사말에 대해 묻는 문항은 없다. 몇 개 문항에서 보기로 제시된 문장에 인사말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문항은 인사말을 몰라도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다음 문항에서 "안녕하세요?"는 문제의 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6) TOPIK: 8회/1급/쓰기
[59~60]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안녕하세요?** 존슨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나: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어려웠지만 (㉠).
가: 주말에는 무엇을 해요? [... 중간 부분은 생략]
59. (㉠)
① 요즘은 힘들어요 ② 지금은 더 좋아요
③ 요즘은 재미있어요 ④ 지금은 더 어려워요

인사말에 관한 문항이 있다는 것도 TOPIK과 검정시험의 차이이다. 검정시험은 초급의 첫 단계에서 인사말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한국어로만 지시되는 TOPIK에서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항을 만들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습자에게는 인사말을 외우는 것은 아주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인사말을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사말을 초급의 첫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TOPIK과 검정시험에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문법에 관한 문항

여기서는 검정시험과 TOPIK에 나타난 문법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검정시험은 출제되는 문법사항이 모두 '길잡이', '도우미'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TOPIK은 그러한 리스트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TOPIK 7회~9회 기출문제에 나타난 모든 문법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검정시험 출제 기준, 기출 문제와 대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3.3.1 문법형태에 관한 분석

두 능력 평가에 나타난 문법형태를 조사, 종결어미, 연결어미, 관형사형어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17]

3.3.1.1 조사에 관한 문항

TOPIK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조사가 검정시험의 어느 수준에서 출제되는지 정리해 보면 <표6>과 같다.

17) 이하 어미나 조사 등을 제시할 경우는 백봉자(1999)를 따라 표시하기로 한다.

<표 6> TOPIK 문제에 나타난 조사와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

조사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가/이, -를/을, -에, -(으)로, -에서, -에게, -한테, -의, -는/은, -도, -부터, -와/과, -하고	1급	5급	5급
-만, -까지	1급	4급	5급
-에서는, -에는	1급	5급	4급
-보다	2급	5급	5급
-처럼, -께서, -께	2급	4급	4급
(명사) 때문에	2급	3급	4급
-밖에(+부정 표현)	2급	3급	3급
-(이)나, -만큼	2급	준2급	3급
-야/아	2급	없음	준2급

TOPIK 1급에는 호격조사[18]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격조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는/은, -도, -만, -까지'와 같은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검정시험 5급 내지 4급에 해당된다. 조사에 관한 한 초급 첫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항목들은 두 능력 평가에서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TOPIK 2급 문제에서는 다양한 보조사와 조사의 존경형이 추가된다. 대응되는 검정시험의 수준도 다양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나, -만큼' 등 검정시험의 중급에 해당되는 조사가 TOPIK 2급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보다'와 같이 검정시험 5급 수준의 조사가 TOPIK 2급에 처음으로 출제된다. TOPIK 1급 수준의 조사는 TOPIK과 검정시험에서 거의 일치되었는데 그 이외의 조사에 관해서는 어떠한 항목을 어떠한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 두 능력 평가에서 차이가 커진다.

조사에 관한 문항은 TOPIK과 검정시험에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된다.

(7) TOPIK: 7회/1급/어휘 · 문법

[13~14] <보기>와 같이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18) 호격조사 '-아/야'가 TOPIK의 2급, 검정시험2의 준2급에 보이지만 검정시험1에서는 '길잡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길잡이' 20쪽에 보면 대우법에 관해서 '해체'가 준2급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시켜서 검정시험1에서도 '-아/야'를 준2급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3. 제 방( ) 책상이 없어요.
① 에 ② 을 ③ 에게 ④ 에서

(8) 검정시험1: 24회/5급
( ) 안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3) 오늘은 친구( ) 만납니다.
(今日は友だちに會います. [오늘은 친구를 만납니다])
① 에 ② 을 ③ 에게 ④ 를

검정시험에서는 5급·4급 문제에서 조사에 관한 문항이 매회 몇 문항씩 출제된다. '-께, -께서' 등 경어법과 관련된 문항, 그리고 (8)처럼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보이는 차이를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

3.3.1.2 종결어미에 관한 문항

TOPIK 문제에 나타난 종결어미와 검정시험1·2와의 대응 양상은 <표 7>(다음 쪽)과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TOPIK 1급에는 검정시험1의 5급부터 3급에 해당되는 다양한 종결어미가 나타나 있다. 일부 검정시험의 중급 수준까지 포함되어 있다.

둘째, TOPIK 2급 문제에 "해"체 종결어미가 나타난다. <표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체는 검정시험 중급에 와서야 출제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TOPIK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결어미들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7> TOPIK 문제에 나타난 종결어미와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

종결어미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으)니까	1급	5급	5급
-ㅂ니다/습니다	1급	5급	5급
-어/아/여요	1급	5급	5급
-지요	1급	4급	5급
-(으)세요(평서문)	1급	4급	5급
-(으)세요(명령문)	1급	3급	5급
-(으)ㄹ까요	1급	3급	5급
-(으)ㅂ시다	1급	3급	5급
-(으)ㄹ게요	1급	3급	4급

-(으)십시오	1급	3급	4급
-(으)ㄹ래요	1급	준2급	4급
-는/(으)ㄴ데요	1급	3급	3급
-군(요)[19]	1급	준2급	3급
-요	2급	3급	5급
-네요	2급	3급	4급
-(는/ㄴ)다	2급	3급	3급
-어/아/여야겠다	2급	준2급	없음
-어/아/여(해체)	2급	준2급	3급
-(는)구나(해체)	2급	준2급	준2급
-지(해체)	2급	준2급	없음
-자(해체)	2급	준2급	없음

한편 검정시험1과 2 사이에도 차이가 확인된다. '-(으)ㄹ까요, -(으)ㅂ시다' 등 검정시험1에서 3급에 해당되는 어미가 검정시험2에서는 5급에 포함되어 있다. 검정시험 5급이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항목을 포함시키면 학습자의 부담이 커지고 또 의욕도 상실할 수가 있다.

다음은 TOPIK 2급 문제에 나타난 "해"체 종결어미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8회 시험에만 출제된 것인데 문항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TOPIK: 8회/2급/쓰기

[53~54]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영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잘 지내고 있어. (㉠)?

가: 그래, 정말 덥구나. 그런데 지영이는 왜 안 오지?

나: 응, 지영이는 오늘 회사에 일이 많아서 (㉡) 했어.

가: 그럼 저녁을 먹자.

53. (㉠): ① 요즘 날씨가 덥지 ② 요즘 날씨가 어때
③ 더울 때 무엇을 해 ④ 더운 날씨를 좋아해

54. (㉡): ① 못 온다고 ② 기다린다고
③ 와야 한다고 ④ 저녁을 먹는다고

19) 간투사 "그랬군요"로만 나타났다. 정답으로 설정된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이 문항에서 확인되는 발화 상황은 한국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말체까지 초급 수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심스럽다. 여기서도 일본에서 출판된 초급 교재들을 보면 노마[野間秀樹](2000)에서는 문장체로서 "한다"체는 제시하였으나 해체는 다루지 않았다. 權在淑(1995), 오고시[生越直樹]·曺喜澈(2000)에서도 "해"체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체계적으로 기술된 초급 교재에서 "해"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해요체조차 다루지 않고 격식체인 '-ㅂ니다/습니다'만으로 기술된 교재도 많다. '초급' 단계에서 높임의 등급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비모어로서의 언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언어 교육의 근본적인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문항에는 "해"체 종결어미 외에도 '-고 있다'를 비롯해 아주 다양한 문법 형태들이 나타나 있다. 또 54번 문항에서는 인용문까지 출제되었다. "해"체 종결어미만 보아도 검정시험 중급에 해당되는 것들인데(<표7>참조) 그 외에 많은 항목들을 포함시키면 문항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많아지므로 수험자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초급'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평가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문제에 포함시킬 항목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1.3 연결어미에 관한 문항

다음으로 두 능력 평가에 나타난 연결어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정시험 5급에는 연결어미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문(單文)만 출제된다는 것이다. 한편 TOPIK에서는 1급부터 연결어미가 출제된다. 이것은 초급의 어느 단계에서 복문(複文)이 요구되는지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8>은 TOPIK에 나타난 연결어미와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TOPIK 문제에 나타난 연결어미와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

연결어미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고	1급	4급	4급
-지만	1급	4급	4급
-어/아/여서	1급	4급	4급
-(으)면	1급	4급	4급
-(으)러	1급	3급	4급
-(으)니까	1급	3급	4급
-게	1급	4급	3급
-는/(으)ㄴ데	1급	준2급	3급
-(으)려고	2급	3급	4급
-(는/ㄴ)다고	2급	3급	4급
-(으)면서	2급	3급	3급
-거나	2급	준2급	3급
-(으)려면	2급	2급	3급
-는/(으)ㄴ/(으)ㄹ지	2급	준2급	준2급

여기서도 종결어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OPIK 1급에 검정시험의 중급 수준에 해당되는 어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OPIK 1급 문제를 보면 어휘・문법 영역에 대화 중의 빈칸을 메우는 문항, 그리고 쓰기 영역에 두 문장을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문장을 고르는 문항이 매회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 TOPIK: 9회/1급/어휘・문법

[21~24] <보기>와 같이 ( )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1. 가: 왜 수미 씨 생일 파티에 안 갔어요?

나: 감기에 ( ) 못 갔어요.

① 걸리고 ② 걸려서 ③ 걸리면 ④ 걸리지만

(11) TOPIK: 8회/1급/쓰기

[48~50]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50. 김 선생님을 만납니다. 사무실에 갑니다.

① 김 선생님을 만나러 사무실에 갑니다.

② 김 선생님을 만나는데 사무실에 갑니다.

③ 김 선생님을 만나니까 사무실에 갑니다.

④ 김 선생님을 만나지만 사무실에 갑니다.

검정시험에서도 (10)처럼 연결어미를 선택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또 한국어 혹은 일본어 문장을 번역하는 문제에서도 연결어미에 관한 문항이 나타난다.

(12) 검정시험1: 25회/3급

1)~5)를 일본어로 번역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힘들어요.

① その問題が解決されないとむずかしいです.

② その問題が解決しないのでたいへんです.

③ その問題がとけなくて苦勞しました.

④ その問題が解決しなくても苦しいです.

이 문항은 "해결 안 돼서" 부분과 "힘들어요" 부분의 의미 파악에 초점이 있다. 매개가 되는 일본어가 없어진 검정시험2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 출제되었다.

(13) 검정시험2: 26회/4급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2) 식사를 <u>한 후에</u> 도서관에 갔어요.

① 하고 ② 하러 ③ 해서 ④ 해도

검정시험2 문제를 보면 연결어미를 직접 고르는 문항은 (13)밖에 없고 또 문제 전체를 보아도 '-어/아/여도 되다, -고 있다' 등 분석적인 형식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한 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TOPIK에서는 매회 몇 문항씩 연결어미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검정시험에서 중급에 배치된 '-거나'가 TOPIK에서 2급에 포함되어 있어 TOPIK 초급에서는 검정시험의 중급 수준까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정시험1·2는 연결어미에 대해 초급의 첫 단계, 즉 5급에서는 아직 배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TOPIK에서는 1급부터 연결어

미를 중시하여 출제하고 있다. 초급 단계부터 연결어미를 학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듯하나 너무 많은 항목을 포함시키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검정시험에서는 연결어미를 4급부터 중급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출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3.1.4 관형사형어미에 관한 문항

관형사형어미 '-는, -(으)ㄴ, -(으)ㄹ'은 검정시험1・2에서 모두 4급 출제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20] 한편 TOPIK에서는 1급 문제에 관형사형어미가 확인된다.

(14) TOPIK: 7회/1급/쓰기
[41~45]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2. 가: _____?
나: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가: 아, 그래요? 저도 피아노를 자주 쳐요. [선택지는 생략]

(15) TOPIK: 9회/1급/어휘・문법[21]
[17~20] <보기>와 같이 ( )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 가: 언제 회사에 가요?
나: 한 시간 후에 ( )
① 가지요? ② 갔어요. ③ **갈 거예요**. ④ 가고 있어요.

TOPIK 1급 문제에 나타난 용언 관형사형은 (14)처럼 '-는 것이/것을'의 형식으로 3개, '지난 주말'와 같이 '지난'이 1개("지난주"는 제외), 그리고 '다른'이 1개 나타났다. 또한 '-(으)ㄹ'은 (15)와 같이 '-(으)ㄹ 거예요'의 형식으로만 나타난다.[22] 이 '-(으)ㄹ 거예요'는 (15)처럼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묻는 문항

20) 관형사형어미 '-던'은 검정시험1・2의 3급, '-었/았/였던'은 준2급(검정시험1), 3급(검정시험2)에 포함된다. 또 '-던'은 TOPIK에서 초급 문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하의 기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1) 이 문항에서 문맥에 따라서는 "①가지요?"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항에서의 문맥에 대한 논의는 3.4절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22) 참고로 '-(으)ㄹ 거예요'는 검정시험1에서 3급, 검정시험2에서 4급에 배치된 표현

에서 빈번히 출제된다. <표 4-2>에서 보았듯이 용언 관형사형은 TOPIK 2급의 평가 내용에 포함된다. '-(으)ㄹ 거예요'와 같은 분석적인 형식의 일부라 하더라도 TOPIK 1급 단계에서 학습자는 형태론적으로 관형사형어미 '-(으)ㄹ'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문제에 '-(으)ㄹ'이 나타남은 이러한 기준 설정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3]

3.3.2 '분석적인 형식'에 관한 문항

다음은 '-고 있다, -고 싶다' 등 용언의 '분석적인 형식'[24]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분석적인 형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 평가에서도 초점이 될 터인데 TOPIK과 검정시험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TOPIK 1급 문제에 나타난 분석적인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TOPIK 문제에 나타난 분석적인 형식과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

분석적인 형식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고 싶다	1급	4급	5급
-고 있다	1급	4급	4급
-지 못하다	1급	4급	4급
-지 않다	1급	4급	4급
-어/아/여 주다	1급	3급	4급
-(으)려고 하다	1급	3급	4급
-(으)ㄹ 것이다	1급	3급	4급
-지 말다	1급	3급	4급

이다. 3.3.2절 <표9-2>을 참조.

23) 또 TOPIK 1급 시험 문제를 보면 문제 지시문에는 용언 관형사형이 유난히 많다. 예를 들어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TOPIK: 8회/1급/어휘·문법7~9 지시문)에는 용언 관형사형이 두 번이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시문은 초급 학습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4) 보조적인 단어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문법적인 형식을 '분석적인 형식'이라고 한다. 간노[菅野裕臣]외(1988;1991:1018), 노마히데키(2002:30, 2006) 참조.

-어/아/여 보다	1급	3급	4급
-(으)ㄹ 수 있다	1급	3급	3급
-(으)ㄹ 수 없다	1급	3급	3급
-어/아/여도 되다	2급	3급	4급
-(으)면 되다	2급	3급	4급
-(으)면 안 되다	2급	3급	4급
-(으)ㄹ 때	2급	3급	4급
-어/아/여야 하다	2급	3급	4급
-어/아/여야 되다	2급	3급	4급
-는/(으)ㄴ/(으)ㄹ 것 같다	2급	3급	3급
-기 때문에	2급	3급	3급
-기 바라다	2급	없음	3급
-는 게 좋다	2급	없음	3급
-는 중이다	2급	준2급	3급
-(으)ㄴ 적이 있다	2급	준2급	3급
-(으)ㄹ 줄 알다 (능력)	2급	준2급	3급
-기 전에	2급	준2급	3급
-(으)ㄴ 지	2급	준2급	3급
-어/아/여서 그러다	2급	없음	3급
-게 하다	2급	준2급	3급
-(으)ㄹ까 하다	2급	준2급	3급

TOPIK 1급 · 2급에 다양한 형식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는데[25] 여기서는 검정시험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표9>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정시험1에서는 5급에 분석적인 형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정시험1의 4급에도 <표9>에 나타난 '-고 싶다, -고 있다, -지 못하다, -지 않다'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3급에 와서 다양한 형식이 대폭 추가된다. 검정시험1은 초급을 세 단계로 나눔으로써 단계별 출제 항목도 다른 능력 평가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한편 검정시험2는 5급부터 '-고 싶다'가 출제될 뿐 아니라 4급에 포함되는 분석적인 형식도 많아졌다. 그리고 검정시험1에서 초급인 3급에 포함되었던 일부 항목이 검정시험2에서는 중급에 포함되게 되었다.

25) 고우리(2004:46)에서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통어적 구문'을 정리한 바 있는데 그것과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를 대조해 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노마[野間秀樹](2000), 오고시[生越直樹] · 曺喜澈(2000) 등에서 제시된 분석적인 형식은 고우리(2004:46)에서 제시된 항목 중 반 정도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TOPIK 2급에 나타나는 분석적인 형식 중, 반 이상이 검정시험에서 중급에 해당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분석적인 형식의 이러한 분포 차이만 보아도 두 능력 평가는 그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초급'이라는 말로 함께 묶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고 있다'와 '-(으)려고 하다', '-(으)ㄹ 것이다' 등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빈번히 나타나는데 이들 형식은 검정시험 4급 이상의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같은 초급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검정시험에서도 출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형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

(16) 검정시험1: 24회/3급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5) 새를 기르고 있(15).

(いるようです[있는 것 같아요])

① 는 것이에요 ② 어야 해요 ③ 는 것 같아요 ④ **을까 해요**

분석적인 형식 '-(으)ㄹ까 하다'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검정시험1에서 준2급에 배치된 항목이다. 여기서 "④을까 해요"는 정답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출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문제 중에 제시하면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답으로 제시된 경우를 살펴보자. TOPIK 문제를 보면 <표 9>에 제시된 거의 모든 형식이 문항의 정답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검정시험 준2급 수준의 형식도 출제된다.

(17) TOPIK: 9회/2급/쓰기

[45~48]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5. 가: 이번에 갈 가족 여행 장소는 정했어요?

나: _____.

가: 잘 생각했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①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② 설악산에 **가기로 했어요**

③ 좋은 장소를 모르겠어요 ④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했어요

여기까지 분석적인 형식과 관련된 문항 분포를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분석적인 형식에서는 TOPIK과 검정시험 사이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두 능력 평가에서 어떠한 항목을 초급에 포함시킬 것인지 기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용언 활용에 관한 문항

한국어 학습에 있어 용언 활용의 습득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절에서는 용언 활용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용언 변격활용에 대해 검토하겠다. 2.1절의 <표 4-2>에서 보았듯이 TOPIK에서 1급 평가 내용으로 'ㅡ', 'ㅂ', 'ㄹ' 변격동사가 설정되어 있고, 2급은 '르', 'ㅅ', 'ㅎ', 'ㄷ' 변격동사가 설정되어 있다. 변격활용 출제에 관한 각 능력 평가의 기준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26]

<표 10> 변격활용에 관한 TOPIK과 검정시험의 출제 기준

활용	TOPIK	검정시험1	검정시험2
'여'변격활용	없음	5급	5급
'ㄹ'동사	1급	4급('알다'만 5급)	5급
'으'동사	1급	4급	4급[5급]
'ㅂ'변격활용	1급	3급	4급[5급]
'ㄷ'변격활용	2급	3급	4급
'르'변격활용	2급	3급('모르다'만 5급)	4급
'ㅅ'변격활용	2급	3급	4급
'ㅎ'변격활용[27]	2급	3급	3급
'러'변격활용	없음	3급	3급
'우'변격활용(푸다)	없음	3급	준2급

26) 검정시험2 출제 기준을 보면 '으'동사와 'ㅂ'변격활용은 5급에서 문제에 나타나되 활용에 대한 지식은 묻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표에서는 "[5급]"처럼 [ ] 안에 넣어서 표시하였다.

27) 'ㅎ'변격동사 중 '그렇다, 어떻다'의 활용형 '그래요, 어때요'에 대해서는 두 능력 평가에서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다. 검정시험1·2 모두 'ㅎ'변격활용은 3급 기준에 포함되지만 검정시험1에서는 '그래요, 어때요'만 4급에 배치되었고, 검정시험2에서는 '어때요'는 5급, '그래요'는 4급에 배치되었다. TOPIK 1급에서는 '그래

실제로 출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8) TOPIK: 9회/2급/어휘 · 문법
[22~24]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22. ① 가방이 아주 가벼워요.
② 저는 서울에서 살아요.
③ 어제는 배가 아프었어요.
④ 동생하고 저는 성격이 달라요.

(19) 검정시험2: 26회/4급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2) 아픈 건 다 (20)?
① 낳았어요 ② 나샀어요 ③ 나았어요 ④ 낫았어요

이 외에도 '쓰다'를 '써'로 고쳐 쓰는 등(TOPIK: 8회/1급/어휘 · 문법) 주관식 문항에서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

'ㄹ'동사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항은 TOPIK과 검정시험에서 거의 일치되는 형식이다.

(20) 검정시험2: 26회/5급
활용형으로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2) 지금 무엇을 (25)?
① 만드러요 ② 만드요 ③ 만들습니까 ④ 만듭니까

(21) TOPIK: 8회/1급/어휘 · 문법
[22~24] <보기>와 같이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24. 저는 서울에서 ( ).
① 살아요 ② 삽니다 ③ 살습니다 ④ 살고 있어요

위의 예들은 모두 각 능력 평가의 기준에 맞게 출제된 문항이다. 한편 TOPIK 1급 문제에는 "달라요, 들어요(<듣다)" 등 평가 내용에 없는 변격동

요, 어때요'만 나타났고, 2급에서도 "까만색, 파란색" 등 복합어의 구성요소로만 나타났다. 이 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TOPIK은 2급, 검정시험1 · 2에서는 3급에 나타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사가 나타나 있다.[28] TOPIK 1급 문제에 나타나는 용언을 보면 출제 기준에 포함된 'ㄹ'동사, 'ㅇ'동사, 'ㅂ'변격동사 이외에 'ㄷ'변격동사, 'ㄹ'변격동사까지 확인된다. 검정시험1의 5급에서는 '여'변격활용과 "알다/모르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변격동사가 문제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분포라고 할 수 있다.

검정시험 5급에서는 다음처럼 정격활용에 대한 문항도 나타난다.

(22) 검정시험1: 24회/5급
( )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7) 내일은 영화를 (33).
(明日は映畵を見ます.)
① 뷔요 ② 봐요 ③ 보어요 ④ 보여요

여기서는 정격활용 동사 '보다'의 활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한편 정격활용에 대한 이러한 문항은 TOPIK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앞에서 보았듯이 변격활용에 대한 문항만 확인된다. 그러나 학습자에게는 오직 변격활용만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습자에게는 "봐요"란 형태도 아주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용언 활용형을 한글로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은 초급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모어화자인 학습자는 원래부터 그 용언이 정격활용인지 변격활용인지도 알 수 없다. 문제 작성자 자체가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3.4 담화적 관점에서의 분석: 대화문에서의 문맥

두 능력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항 양식으로 다음 예와 같은 '대화 완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항은 특히 TOPIK에서는 '쓰기' 영역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문항 유형이다.

---

28) 예를 들어 TOPIK 7회/1급/어휘・문법 영역의 [4]번 문제에는 '달라요'가 오답지로 제시되어 있다.

(23) TOPIK: 8회/1급/쓰기

[31~35]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4. 가: 제가 전화를 할까요?

나: _____.

① 네, 전화를 하세요 ② 네, 전화가 없어요

③ 내일 전화를 하겠어요 ④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항에서 정답은 무엇일까? 공개된 정답표에 의하면 정답은 ①이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②는 "네, [상대방에서 아직] 전화가 없어요." 정도로 파악하면 이 대화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③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안 해도] 내일 [내가] 전화를 하겠어요."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④는 어떨까. "[이미] 사무실에서[=사무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란 의미로 아무런 문제없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결국 적당한 상황만 주어지면 이 문항은 모든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항은 검정시험에도 존재한다.

(24) 검정시험1: 25회/3급

대화문의 ( ) 안에 맞는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5) A: 여보세요. 성민이 오빠예요?

B: 네, 누구예요?

A: 미순이에요. (20)?

B: 좀 바쁜데.

① 어제는 바빴어요 ② 지금 시간 있으세요

③ 전화 걸었어요 ④ 오빠, 잘 있어요

정답은 ②로 되어 있다. 그런데 A가 매우 반가워하면서 "오빠, 잘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B는 귀찮은 듯이 "좀 바쁜데."란 말을 했다. 이 정도의 상황을 생각하면 ④도 이 대화에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복수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대화문에 적절한 문맥[29]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험

문제에 나타난 대화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담화로서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어떠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 문항에는 문맥이라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趙義成(2005:254)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들 문항의 정답은 문제 작성자가 상정한 문맥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사실 그 "문맥"도 문제 작성자가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주관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맥"도 그 대화에서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문맥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짧은 대화에서도 그 문맥을 알 수 있도록 대화문을 조절하거나 어떤 문맥으로도 하나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담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결여는 단지 문제 작성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실제 언어 사용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 문장은 담화의 일부로서 어떠한 문맥 속에 존재한다. 두 능력 평가의 문항을 보는 한, TOPIK과 검정시험 모두 이 사실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 '언어 능력'은 어디까지나 실제 언어 사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문항에도 실제 언어가 보여 주는 양상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4. 결론

4.1 TOPIK과 검정시험 – 어떻게 다른가?

본고에서는 TOPIK <표현> 영역과 검정시험1・2의 <筆記> 영역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발음, 어휘, 문법, 그리고 담화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발음, 특히 발음 변화에 관한 문항은 TOPIK에는 안 보이고 검정시험1・2에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비교해 보면 발음과 관련된 기술에 명확한 차이가 보인다.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발음 변화를 규칙으로서, 지식으로서 정리하여 지도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은 그러한 기술이 거의 안 보인다. 발음 교육에 대한 입장 차

29) 여기서 '문맥'은 문면에 나타나 있지 않는 상황도 포함한다.

이가 교재, 능력 평가에 여실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에 관해서 인사말에 관한 문항, 한자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문항 역시 TOPIK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한자와 한자음에 관해서는 인식 자체가 TOPIK과 검정시험에서 다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 체계를 생각할 때, 일본어 모어화자에 대한 한국 한자음, 한자어 교육은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정 모어화자를 응시 대상자로 하지 않는 TOPIK과 일본어 모어화자를 주요 응시자로 보는 검정시험 사이의 특징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문제에 나타난 문법형태들은 TOPIK과 검정시험1, 그리고 검정시험2 사이에서 서로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그 양상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는 검정시험1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tr><th>난이도</th><th>TOPIK</th><th>검정시험1</th><th>검정시험2</th></tr>
<tr><td rowspan="5">낮음
↑

↓
높음</td><td rowspan="3">1급</td><td>5급</td><td rowspan="3">5급</td></tr>
<tr><td>4급</td></tr>
<tr><td rowspan="2">3급</td></tr>
<tr><td rowspan="2">2급</td><td rowspan="2">중급</td><td rowspan="2">4급</td></tr>
<tr><td>중급</td></tr>
</table>

<그림 1> 문법형식의 분포로 정리한 TOPIK과 검정시험의 대응 양상

이 그림에서 TOPIK 문제가 검정시험보다 더 넓은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PIK 1급 문제는 검정시험1의 5급과 4급, 그리고 3급의 일부까지, 검정시험2의 5급과 4급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TOPIK 2급은 검정시험 4급과 3급, 중급의 일부까지 포함하며 검정시험2의 4급과 중급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즉 같은 '초급'이라 하더라도 TOPIK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화의 관점에서도 문항을 검토해 보았다. "대화문 완성하기"와 같은 유형의 문항에서 문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였다. 실제 언어 사용을 생각할 때, 모든 문장은 일정한 문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TOPIK과 검정시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어떻게 대응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4.2 문항에 나타난 대조언어학적인 관점

본고에서 거듭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검정시험은 일본어 모어화자를 응시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이다. 검정시험의 이러한 성격은 개별 문항에서도 확인된다. 검정시험1에서 다음 문항을 보자.

(25) 검정시험1: 24회/3급
( )에 알맞은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1) 관광여행(11) 계획이다.
(の爲の[-를/을 위한])
① 에 위한 ② 에 위해 ③ 을 위한 ④ 의 위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④ 의 위해"란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어는 '~のための'와 같이 조사 'の'('-의'에 해당됨)가 나타나지만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은 조사로 "-를/을"이 요구된다. 일본어를 직역하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는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과 같이 검정시험1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대응되지 않는 표현들이 출제된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응시 대상자의 모어를 고려한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의 유무를 보여주는 것이다.[30] 양 언어가 가지는 유사점으로 인해 일본어 모어화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오류의 대부분은 일본

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31] 검정시험은 주로 일본어 모어화자를 응시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모어로 인한 오류에 대해 학습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조적인 관점이 문제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TOPIK은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 그 응시 대상자의 모어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특정 언어와의 대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검정시험2는 검정시험1과 마찬가지로 주요 응시 대상자로 일본어 모어화자를 상정하고 있는데(도우미 7~8쪽) 초급 문제에서 일본어를 거의 다 빼 버렸다.

(26) 검정시험2: 26회/5급
( )에 알맞은 것을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십시오.
5) A: 누구(30) 만나요?
B: 친구요.
① 에 ② 에게 ③ 과 ④ 를

이 문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어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대조적인 관점은 확인할 수 있다. 동사 '만나다'가 요구하는 조사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다르다는 것을 묻는 문항으로 문제 자체는 3.3.1.1절의 (8)과 동일하다. 그러나 대응되는 일본어가 없으면 단순히 '-를/을 만나다'라는 표현을 묻는 문제가 되어 버려 학습자가 자기의 모어와 대조함으로써 생각하는 열쇠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항은 TOPIK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TOPIK은 자기 모어와는 관계없이 한국어에 대한 지식만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언어 학습에 있어 모어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학습자는 자기의 모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어 능력 평가에서도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을 적극적으

30) 이희경(2005:492)에서도 검정시험의 대조언어학적인 측면이 지적되어 있다.
31) 예를 들면 孫禎慧(2005)에서 '하고'형과 '해서'형에 대해 일본어 모어화자의 오류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데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에 모어와의 관련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로 받아들이고 수험자가 자기의 모어와 대조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검정시험2는 그러한 기회 중 하나를 없애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 TOPIK과 검정시험－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TOPIK과 검정시험은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

먼저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1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점 인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 두 능력 평가를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경우 초급만 보아도 두 시험의 레벨 차이가 큰데 똑같이 학점을 인정해도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TOPIK과 검정시험과의 대응 양상을 파악해야 어느 급에서 얼마나 학점을 인정해 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검정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할 경우 그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도 있다.

'초급' 수준을 생각할 때, 한국어 모어화자의 입장에서 본 '초급'이 아닌 비모어로서의 '초급'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비모어로서 배우는 사람들에 있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항목이 필요한가. 아주 다양한 어미와 표현을 배워야 '초급'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환경도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울 경우, 일주일에 한 번, 90분 수업을 30주 동안 듣게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환경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한국에서 학습자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교실을 떠나서라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배우는 학습자 사이에는 당연히 학습 분량에 있어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TOPIK은 세계에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각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상황,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하여 그 평가 항목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검정시험도 그 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림 1>로 알 수 있듯이 검정시험2로 바뀌면서 각 등급의 범위가 넓어졌고 더 어려워

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평가"란 특징을 고려하면서 난이도를 설정, 문항을 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언어 능력 평가는 단지 학습자의 실력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다. 수험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특히 초급 단계 시험은 쉽게 문제를 풀어 시험 합격을 유도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도 기대가 된다. 즉 언어 능력 평가란 학습자가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회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본고에서는 하나의 시도로 그쳤으나 언어 능력 평가의 분석은 문제에 나타난 항목만을 표면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언어관, 한국어교육 현장까지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의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그 문맥까지를 토대로 하여 문항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아(2002), 한국어능력시험 초급단계의 어휘 · 문법 영역 문항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우리(2004), 한국어 어휘 · 문법 숙달도 평가 방안 연구: 한국어능력시험 1, 2급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포럼(2005),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 상황과 과제, 동경: 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

김광해(2002), "한국에서의 한국어 평가: 한국어 능력 시험(KPT: Korean Proficiency Test)", 국어교육연구 제10집,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03-448쪽.

김왕규 · 김정숙 · 조항록 · 정구향 · 조지민 · 김수정(2001),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김유정(2005), "한국의 한국어 능력 평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론1, 서울: 한국문화사, 419-435쪽.

김정숙 · 최은규 · 김유정(2005a),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연구(I): 등급 부여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6-1,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7-97쪽.

김정숙 · 최은규 · 김유정(2005b),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연구(II): 평가 문항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6-2,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1-107쪽.
김중섭 · 조현용 · 방성원 · 홍윤기 · 호정은(2000), 한국어: 초급I,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중섭 · 조현용 · 방성원 · 홍윤기 · 호정은(2001), 한국어: 초급II,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혜진(2005), "일본의 한국어 능력 평가: ハングル(한글)能力檢定試驗에 대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론 1, 463-479, 서울: 한국문화사.
노마히데키(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노마히데키(2006), "현대한국어 용언의 분석적인 형태에 대하여", 고영근 외 편, *Whither Morphology in the New Millennium?* (21세기, 형태론 어디로 가는가), 서울: 박이정, 297-318쪽.
민병곤(2005),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현황 및 과제", 한국어교육 16-3,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7-162쪽.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 1, 서울: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2), 한국어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유타니[Yutani, Yukitoshi](2002),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론", 국어교육연구 10,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91-319쪽.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Student Book,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희경(2005), "한글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비교 분석: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5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집,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81-495쪽.
최은규(2005), "평가의 연구사와 변천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론 1, 서울: 한국문화사, 369-398쪽.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제10회 한국어능력시험 안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문화연수부 편(2003), 한국어 1,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간노[菅野裕臣](1981), 朝鮮語の入門, 東京: 白水社.
간노[菅野裕臣] 외(1988;1991), コスモス朝和辭典 第2版, 東京: 白水社.
權在淑(1995), 表現がひろがるこれからの朝鮮語, 東京: 三修社.
노마[野間秀樹](2000), 至福の朝鮮語, 東京: 朝日出版社.
노마[野間秀樹](2005), "ハングル檢定 その背景と展望", 第9回 外國語教育學會シンポジウム(2005年11月6日, 東京外國語大學) 發表要旨, 東京: 外國語教育學會.
노마[野間秀樹] · 金珍娥(2005), NHKテレビ 안녕하십니까? ハングル講座 4月號,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노마[野間秀樹] · 무라타[村田寬] · 金珍娥(2004), ぷち韓國語, 東京: 朝日出版社.
孫禎慧(2005), "日本語を母語とする韓國語學習者の誤用分析: 해서形と하고形を中心

に", 朝鮮學報 第195輯, 天理: 朝鮮學會, 1-63쪽.
오고시[生越直樹]・曺喜澈(2000), ことばの架け橋, 東京: 白帝社.
와다[和田稔] 번역(1999), 言語テストの基礎知識(Brown, J. D., *Testing in Language Programs*, 1996), 東京: 大修館書店.
유타니[油谷幸利]・高榮珍(2005), 實用韓國語, 東京: 白水社.
이토[伊藤英人](2005), "韓國漢字音教育法", 2005年度韓國語教師研修會講義要旨, 東京: 財團法人國際文化フォーラム, 126-150쪽.
趙義成(2005), "評価の方法, テスト論", 2005年度韓國語教師研修會講義要旨, 東京: 財團法人國際文化フォーラム, 251-264쪽.
하세가와[長谷川由起子](2004),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國語: 讀んで書こう1, 東京: 白帝社.
한글검정협회[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2006), 「ハングル」檢定公式ガイド 合格도우미(トウミ): 合格レベルと語彙リスト 初中級編,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한글검정출제기준검토위원회[ハングル能力檢定試驗出題基準檢討委員會](2002), ハングル學習の手引き,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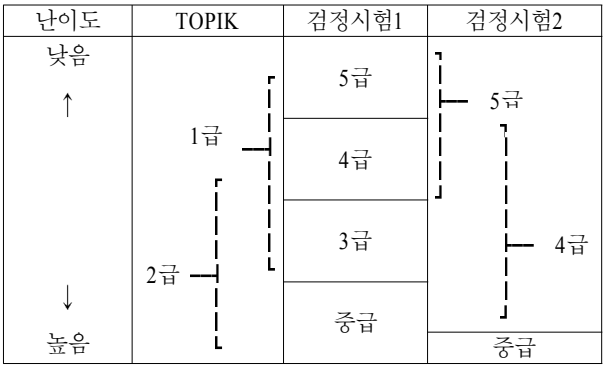
韓國語能力試驗 1・2級過去問題集 第7回+第8回. 財團法人韓國教育財團編, 東京: 三修社, 2006년.
제9회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지(1급, 2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年度春季 第24回「ハングル」能力檢定試驗 <3級・4級・5級>問題と正答.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編,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2005년.
2005年度秋季 第25回「ハングル」能力檢定試驗 <3級・4級・5級>問題と正答.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編,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2006년.
2006年度春季 第26回「ハングル」能力檢定試驗 문제지(5급, 4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웹사이트: http://topik.or.kr/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웹사이트: http://www.hangul.or.jp/

스가이 요시노리(須賀井 義教)
東京外國語大學 博士後期課程, 明治學院大學・法政大學 非常勤講師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11-1 Asahi-cho, Fuchu-shi, Tokyo, 183-8534 JAPAN
전화번호: +81-466-28-8242
전자우편: wigyo@hotmail.com

접수일자: 2006. 9. 29
게재결정: 2006. 10. 30

103ページの<그림 1>を以下のものに差し替えてください.
提出した原稿は以下の通りでしたが，編集段階で脱落したようです.
2007年1月20日 著者

103쪽 <그림 1>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출 원고는 아래와 같았으나 편집 단계에서 탈락한 것 같습니다.
2007년 1월 20일 저자

<그림 1> 문법형식의 분포로 정리한 TOPIK과
검정시험의 대응 양상(修正)